

범어원전 아직도 못 찾아

관무량수경 ①

〈관무량수경〉은 흔히 '왕사상의 비극'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이 경은 그 첫 부분에 '송(宋)의 원가연중(元嘉年中)에 강량야사(薑良耶舍)가 번역하다'라고 되어 있다. 송(宋)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역사상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수, 당, 오대(五代), 그 다음에 일어난 송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 남북조 시대에 생긴, 유무제(劉武帝)가 양자강 남쪽 건업(建業)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송나라가 있다. 이것을 유송(劉宋)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킨다. 그 시대에 서역에서 강량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를 찾아 왔으며, 종남산(終南山)의 도림정사(道林精舍)에 살면서 이 경을 번역하였다고 전해진다.

글쓴이



강동균 (동대 철학과 교수)

의 내용은, 극락국토(極樂國土)의 장엄(莊嚴)과 그 나라에 계시는 무량수불(無量壽佛=아미타부처님)과, 좌우에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관음·세지(觀音·勢至)의 양대 보살을 관(觀)과 관지(觀智)의 두 가지 뜻이 있다. 〈관경〉이란,



34

劉宋代 번역...천태·길장 등 주목 우리나라 교학적 연구 거의 없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들은 거의 두 가지 이상의 이역(異譯)이 있지만, 이 〈관무량수경〉은 한 가지 번역밖에 없다. 물론 인도말로 된 원전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은 역경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관무량수경〉이라는 제목은, 본래의 이름을 〈관극락국토무량수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觀極樂國土無量壽佛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인데, 이것을 줄여서 〈관무량수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경의 이름

극락 정토의 아름다움도 불가사의한 장엄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하며, 〈관지〉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대 신심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신앙적으로는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교학적으로는 〈무량수경(無量壽經)〉과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치중되어 있으며, 〈관무량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관경(觀經)〉에 대

한 연구가 매우 많다. 중국의 정토교의 비조(鼻祖)라 불리워지는 북위(北魏)의 달린(476~542)이 정토교로 회심(迴心)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관경〉이었으며,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를 비롯하여 가상사(嘉祥寺) 길장(吉藏),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등 중국사상을 주도했던 대사가들이 이 〈관경〉에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관경〉의 주석서로는 당(唐)나라 선도(善導, 613~681)의 〈관경사점소(觀經四帖疏)〉가 가장 뛰어나다. 줄여

서 〈관경소〉라고 불린다.

〈관경소(觀經疏)〉에서는 〈관경〉을 〈무량수관경(無量壽觀經)〉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觀)〉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에서 실천을 대표하는 말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도 사용된 용어이다. 도교의 허무사상과 중국에 토착해 관법(觀法)이 하나가 되어 공관(空觀)이라고 하는 도교의 실천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였다. 따라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목받았다. 당시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천태대사, 정영사 혜원, 가상사 길장등 당시를 대표하는 학자가 거의 이 〈관경〉에 주목했다. 그것은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도가 〈관경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 그것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고금해정(古今楷定)이었다. 그것은 잘못된 관의 이해를 바로 잡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다. 관을 잘못 수용했던 것을 바로게 하고 관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량수관경〉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선도가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교를 비롯한 외도(外道)의 관이요, 다른 하나는 불교내에서의 관이다.

태극 내니심판도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5

중도 ③

웬

만한 연륜과 공부 쌓인 사람들조차 삶과 고통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苦)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통의 속성인 일시성을 모를 때, 결국 우리는 고통의 인과(因果)를 계속 떠올리는 망상(妄想)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고의 법칙을 떨칠 수 없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열림과 수용으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명상을 시작할 때, 명상이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을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 "즐거움 마음을 갖기 위해" 등 특별한 이유를 달고 명상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요행(倖倖)이 생긴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명상에서 요행을 찾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명상은 단순히 숨고르는 일이 되고, 권태와 실망이 뒤따라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라!", "사유(思惟)여!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라!" 등을 읊조리며 명상 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자.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는가? 아주 조금일 뿐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원하는 것 얻으려 명상수행하면 숨고르기만 할뿐 자기성찰 못해

무명의 세계에서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집착과 걱정과 고통에 얽매인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만을 원하며 욕망을 따라갈 뿐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란다. 안락과 쾌락을 계속 맛볼 수 없으면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치밀어 불행을 초래한다.

사람의 생각이 감각대상을 좇아만 까닭이다. 생각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나 생각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의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알아차리고(正知) 자각(自覺)할 따름이다. 보통의 경우 감각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그 대상에 관해 생각하고 숙고하고 분별하고 근심한다. 명상 수행은 세간에 얽아, 즐거움과 고통에 집중하고 소란스러움과 고통함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관계를 관(觀)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등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열심히 정진했다면 생각들이 맑아지고,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밀히 마음의 소리를 듣고 타인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욕망·행복 등 마음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그런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마음의 움직임을 충족시키는 한낱 술(術)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만 마음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를 키울 때, 먼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쫓아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무는 저절로 자라난다. 하지만 나무가 얼마만큼 빨리 자라날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명상수행에서 고귀한 정신적 부(富)와 소중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 오종욱기자

과학산책

진공

양자역학은 원자와 핵 수준에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묘사하는 새로운 자연의 언어이다.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입자라는 개념을, 특정 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존재하는 비국소적이며 어떤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만을 알려주는 파동함수로 바꾸어 놓았다.

양자장 이론(quantum field theory)은 이러한 양자역학을 핵과 기본 입자 물리학의 상대론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 이론은 파동함수를 가능한 모든 장(場) 모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양자장 이론이란 그 이전에는 서로 별개라고 여겨지던 입자와 힘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론적인 구조로 통합한다. 입자와 힘은 그 근원을 이루는 양자장의 다른 활동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공에 대한 설명도 약간 다르다. 고전적인 진공에는 물질과 운동하는 장(場)들이 전혀 없다. 진공은 비어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의하면 공간의 한 영역이 이론상 이상적인 물질이 없다고 하여도 이 진공은 비어있지도 않으며 성격이 없지도 않다.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물질과 역복사를 제거하여도 에너지가 진공에 남는다. 이 남아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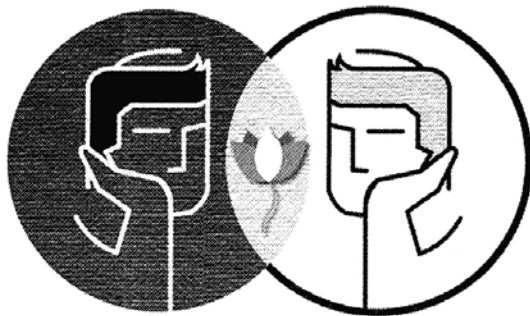
모든 가능성 동시에 존재

"가득차 있어 빈것처럼 보이듯 '나'란 존재 없어서 없는 것인가"

에너지의 존재를 예견한 것은 1911년 막스 프랑크에 의해서인데 이는 진공의 영점 에너지(zero-point energy)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양자장 이론은 이 같은 양자역학의 진공 이론에 모든 가능성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자장 이론은 파동함수를 가능한 모든 장 모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진공을 모든 가능성

들이 더해져 있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다. +1과 -1이 합하여지면 0이 되듯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0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해 진공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어 합쳐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양 극



사건은 그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에는 양자역학적 진공이 영이 아닌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 진공 에너지는 한 입자와 그 반입자의 쌍 생성 혹은 소멸 혹은 장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양자장의 변화를 우리는 요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의 생각하게 된다. 즉 비어있음을 설명하는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비어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다소 우리에게 낯선 방법인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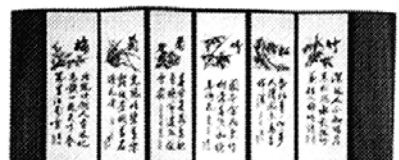
가득 차 있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예를 먹는 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많아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자식, 부모, 생생 혹은 소멸 혹은 장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양자장의 변화를 우리는 요동이라고 부른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향나무 금강반아바라밀경 병풍



전면



후면

최고급 떡박신쇄(불변)

- ◆차레나 성묘(직접 지니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전 공부할 때 경상위에 놓으면 다른 사물에 방해되지 않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 ◆사찰방문 및 귀빈게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불자님들은 각 가정에 한점씩 소장하세요.

■규격: 8폭, 크기: 가로 102cm x 세로 38.7cm

▶가격: ₩50,000 (고급 오동나무 Box 포함)

주문처: 마하물 02)732-1522, FAX 02)737-0697 / 향목명합 0331)286-2371, 011)262-4371

향나무 특징

향나무는 예로부터 집귀를 막고 깨끗이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나무를 행운을 가져온다는 옛부터 전해 내려온 덕담도 있습니다.

향나무 명암

수제품으로 천년의 나무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은은한 자연향이 발산되며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귀히 연락처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며, 결코 값싼 명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선물로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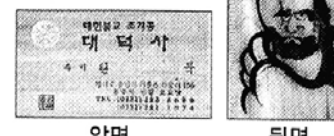
향나무 명함



달마 佛자 범회

- ※ 뒷면 원하시는 글·그림을 넣어드립니다.
- ※ 스님 천분을 모시고있습니다.
- ※ 존경하시는 분에게 선물이나 홍보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 예



앞면 뒷면

스님 신도님에게 한장씩 보시하시면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실용신안등록 No. 17386

▶가격: 30,000원(2등 100매) 50,000원(4등 200매)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향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송농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향토삼백초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참고서적: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심부농신

전통식품지정업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 ~ 7